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POLL)-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전망..루블 가치 더 하락할 듯
- ◇ (초점)-2 월 수출 호조, 무역수지 흑자 전환..대러 제재 여파 지금부터
- ◇ (달러/원 월간 전망)-불확실성 피크 언제냐 관건..방향성보다는 박스권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헝거리에 도착한 사람들 틈에서 한 어린이가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마톤 모너스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3월4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214.2	-1.0%	-2.1%	-8.6%	유로	1.0927	-3.0%	-3.9%	-6.9%
100엔 대비	1,060.9	-2.3%	-2.6%	+1.8%	엔	114.80	0.7%	0.3%	-10.3%
유로 대비	1,330.7	1.4%	1.6%	-1.9%	위안	6.3210	-0.1%	0.5%	+2.7%
위안 대비	192.70	-1.6%	-2.9%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3,614.80	-1.3%	-7.5%	+18.7%
코스피	2,713.43	1.4%	-8.9%	+3.6%	나스닥	13,313.44	-2.8%	-14.9%	+21.4%
코스닥	900.96	3.2%	-12.9%	+6.8%	S&P500	4,328.87	-1.3%	-9.2%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583.67	-1.8%	-7.3%	-4.9%
국고채 3Y	2.214%	-3.0bp	41.6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2.463%	-0.5bp	45.2bp	+67.6bp	미국채 2Y	1.490%	-8.0bp	76.0bp	+61.0bp
국고채 10Y	2.658%	-1.3bp	40.8bp	+53.7bp	미국채 10Y	1.740%	-23.0bp	23.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115.00	25.1%	52.4%	+55.8%	한국 5Y	29.9bp	1.1bp	7.9bp	-0.7bp
금(현물)	1,968.91	4.3%	7.7%	-3.6%	일본 5Y	18.7bp	0.8bp	1.1bp	+2.1bp
TR상품지수	3,748.73	9.6%	12.3%	+24.6%	중국 5Y	57.6bp	0.9bp	16.4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3월 7일(월)>

- KDI 경제동향(3월호)(12:00)
-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15:00)

<8일(화)>

- 기재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현지 재경관 영상 회의 개최(17:30)

<9일(수)>

- 임시공휴일(대통령 선거일)
- 한은, 최근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상황 및 특징 평가(BOK 이슈노트)(12:00)

<10일(목)>

- 기재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07:30)
- 한은, 2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12:00)
- 금융위·금감원, 2월 가계대출 동향(12:00)

<11일(금)>

- 관세청, 3월 1-10일 수출입 동향
- 한은, 1월 국제수지(잠정)(08:00)
- 한은, 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3월 7일(월)>

- 일본 2월 외환보유고 (08:50)
- 중국 2월 외환보유고
- 중국 2월 수출입 (12:00)
- 유로존 3월 섹터스지수 (18:30)
- 미국 2월 고용추이 (자정)

<8일(화)>

- 미국 1월 소비자신용 (05:00)
- 일본 2월 은행대출 (08:50)
- 일본 1월 경상수지 (08:50)
- 일본 2월 경기 동행·선행지수 (14:00)
- 유로존 4분기 GDP 수정치 (19:00)
- 미국 2월 NFIB 기업낙관지수 (20:00)
- 미국 1월 도매재고 수정치·도매판매 (자정)

<9일(수)>

- 일본 4분기 GDP 수정치 (08:50)
- 중국 2월 CPI·PPI (10:3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10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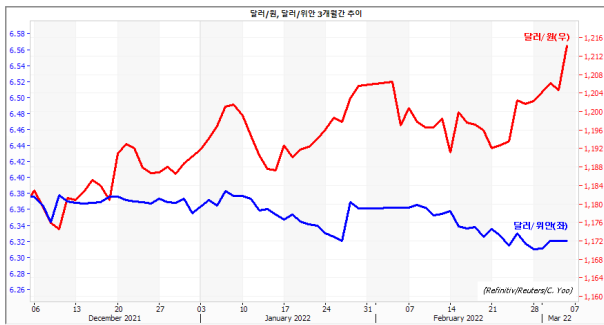
- 일본 2월 기업상품가격지수 (08:50)
- ECB, 금리 발표 (21:45)·기자회견 (22:30)
- 미국 2월 CPI (22: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프랑스, EU 정상회의 개최 (~11일)

<11일(금)>

- 연방준비제도, 미국 분기 금융계정 발표 (02:00)
- 미국 2월 연방예산 (04:00)
- 일본 1월 가계지출 (08:30)
- 일본 1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 (08:5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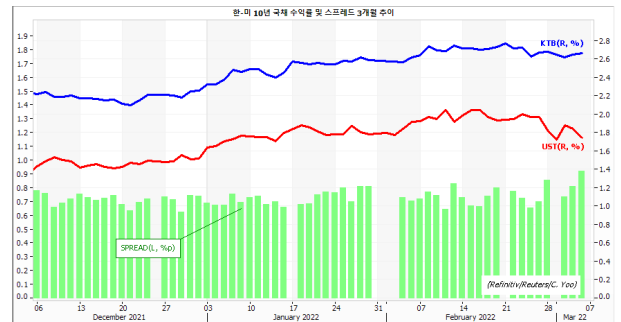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 수위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도 원화는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강도에 연동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200-1230 원이다.
- 지난 주말 달러지수는 2020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했다. 동유럽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가장 취약한 유로 약세 여파와 함께 미국 2월 고용 호조가 함께 맞물린 영향이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3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지만,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미국 경기의 차별화를 등에 업고 글로벌 달러가 강세 압력을 키울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 장 중에는 단단한 수급 저항에 상단이 막히는 반면 역외거래에서 상승 방향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양상이 최근 들어 반복되고 있다.
- 나 홀로 완화 약세가 아닌 데다 약세 속도도 아직은 조절되고 있지만, 향후 전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다.
- 이번 주는 미국과 중국의 2월 물가지표 결과를 통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럽중앙은행(ECB) 정책회의에 대한 관심이 크다. 2월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결과에 따른 위안화 추가 강세 여부도 변수다.
- 국내 일정으로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선거 결과만으로 원화가 크게 들쭉날쭉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현 정부에서 원화의 선진화 제도를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의 추진 동력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 한국은행이 1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하는데,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급등에 따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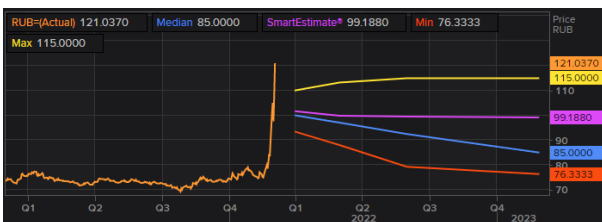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 제재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향후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리라는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여기에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세를 얻고 있다.
- 평판 리스크 때문에 유럽국가와 주요기업들이 러시아에 대한 손절을 빠르게 선언하고 나서고 있어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떠안아야 하는 곳이 유럽이다. 스태그플레이션 논란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유럽권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리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 시장금리가 추세선을 뚫고 하락하기도 쉽지 않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하단인 1.70% 수준에서 지지를 받으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 다음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10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 지표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2월 물가 지표가 또 한번 '서프라이즈'로 나올지에 따라 금리 방향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9일 국내 대통령 선거 결과 역시 채권시장에 중요한 이벤트다. 재정지출 확대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힌 여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채권매도 압력이 단기적으로 강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POLL)-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전망..루블 가치 더 하락할 듯



(달러/위안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달러/루블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벵갈루루/요하네스버그, 3월 04일 (로이터)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미 높은 통화 변동성이 향후 3개월 동안 더 확대될 것으로 로이터 조사에서 전망됐다.

도이치은행에 따르면 통화 변동성은 3일(현지시간) 코로나 19 팬데믹 시작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로이터가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추가 질문 응답자 90% 이상은 향후 3개월 동안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달러/위안은 1개월 후 6.35, 3개월 후 6.38, 6개월 후 6.40, 1년 후 6.40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러시아 루블 가치가 이달 어느 수준까지 더 하락할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11명의 전망치 중간값은 달러 대비 125로 나타났다. 전망치 범위는 120~150까지 제시됐다.

(초점)-2월 수출 호조, 무역수지 흑자 전환..대러 제재 여파 지금부터

서울, 3월 2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2월 한국 수출은 역대 2월 중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는 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하는 등 강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6% 늘어 로이터 전망치 (+18.2%)와 1월(+15.2%) 기록을 모두 넘어서며 1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2월 수출액은 539억달러로 사상 첫 500억달러를 웃돌아 역대 2월 중 최대 실적을 보였고, 특히 하루 평균 수출은 역대 최고인 27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24.0%)를 비롯해 석유화학·석유제품 등 주요 주력품목이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인 데다 지역별로도 고른 호조세를 나타내는 등 견조한 수출 경기가 확인됐다.

한편 2월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5.1% 증가한 530.7억달러로 수입 역시 역대 2월 최고치로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을 받았다. 2월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2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4억달러 증가했다.

다만, 에너지 수입액은 1월에 비해 35억달러 감소했고, 그 결과 무역수지는 8.4억달러 흑자로 3개월 연속 적자를 면하게 됐다.

▲ 대러 제재 여파 이제부터

무역수지 연속 적자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컸던 만큼 2월 무역수지 흑자 전환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러

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로 인한 서방국들의 강력한 대러시아 경제제재 후폭풍을 가능하기 힘든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국내 수출입 전망은 다시 안갯속이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월 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영향이 수출지표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향후 그 영향이 시차를 두고 가시화될 우려가 크다"면서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최근 원자재 수입 비중이 증가하는 흐름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러시아 수출은 약 1.6%, 수입 비중은 2.8%로 교역 비중을 고려할 때 대러 제재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더라도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노무라는 1월 한국 수출 관련 보고서에서 "대러 제재 영향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으로 본다"면서도 "고유가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이 무역흑자 규모가 줄거나 무역적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반도체 칩 제조 공정의 핵심 원료를 수입하고 있어 제재 기간이 길어지면 이에 따른 부족 우려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 호조에 따른 견조한 펀더멘털 확인에도 외환 수급을 둘러싼 긴장감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 은행 외환 딜러는 "당장은 네고 공급도 있고 외환 수급이 잘 버티고 있지만,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수급 불균형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달러/원 월간 전망)-불확실성 피크 언제냐 관건..방향성보다는 박스권

서울, 3월 02일 (로이터) 박예나·이지훈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이 폭넓게 예상되는 3월 시장 전문가들은 대외 불확실성의 전개 상황과 강도, 지속성 여부 따

라 환율 움직임을 결정되겠지만, 원화의 일방적인 방향성 거래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183-1216 원으로 파악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확산 여부와 서방국들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 여파를 시장 참가자들은 최우선 변수로 꼽았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불확실성이 극단적으로 치달기보다는 상황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지하면서 달러/원 환율이 일시적으로는 오를 수는 있어도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은 작게 내다봤다. 또한 환율 상승 시 수급 저항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강하다.

이런 가운데 3월 연준 회의에서 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긴축 가속화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도 큰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경우 투자심리가 회복돼 달러/원 환율은 하향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글로벌 원자재 가격과 공급망 불안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외환 수급 여파 등을 감안하면 달러/원 하단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 또한 크지 않다.

결국 달러/원 상·하단 저항에 대한 강한 인식 속에서 달러/원은 틈틈이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더라도 방향성을 강화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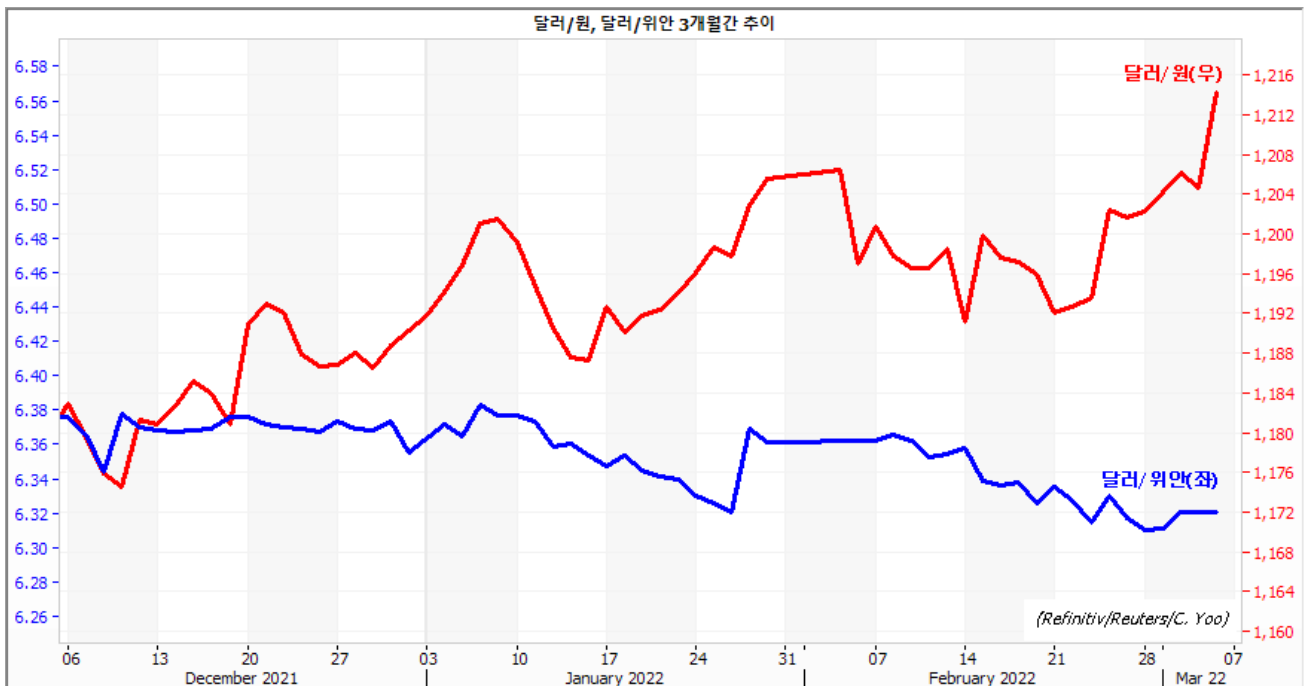
기관명	설문참가자	예상환율 범위	
신한은행	김장욱 팀장	1190	1220
우리은행	이연종 과장	1170	1210
중국공상은행	유원준 팀장	1180	1240
DGB대구은행	이용주 차장	1175	1210
KDB산업은행	노기성 대리	1185	1215
NH농협은행	성혜미 과장	1180	1220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	1180	1210
현대차증권	오창섭 연구원	1190	1220
DB금융투자	문홍철 파트장	1185	1208
NH투자증권	권아민 연구원	1198	1210
평균		1183	1216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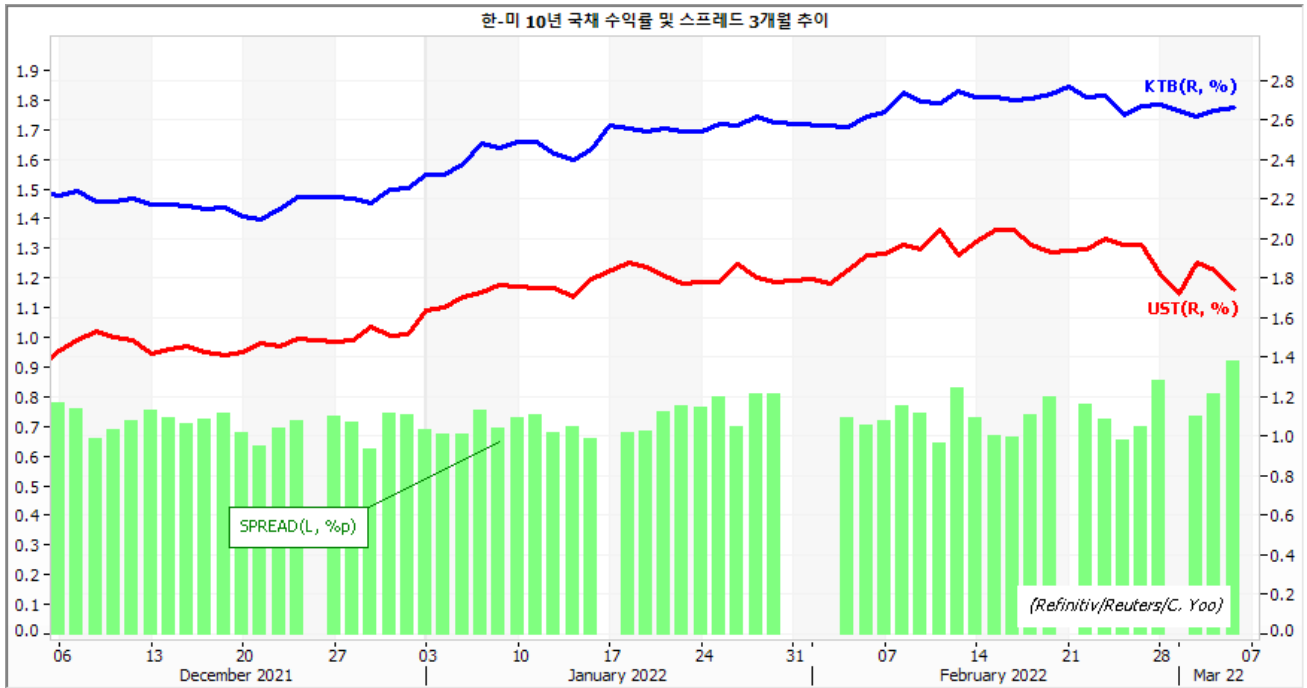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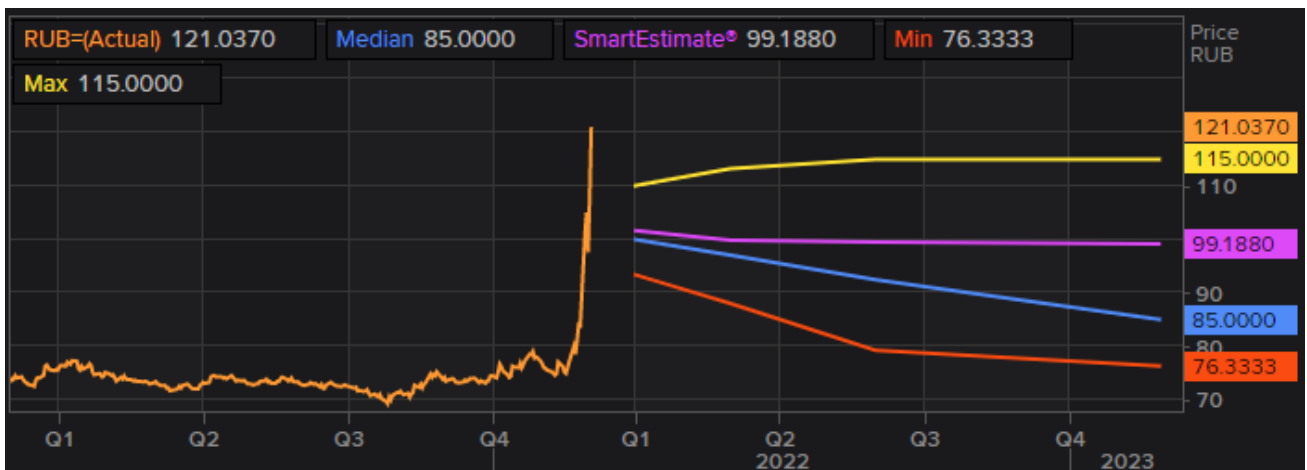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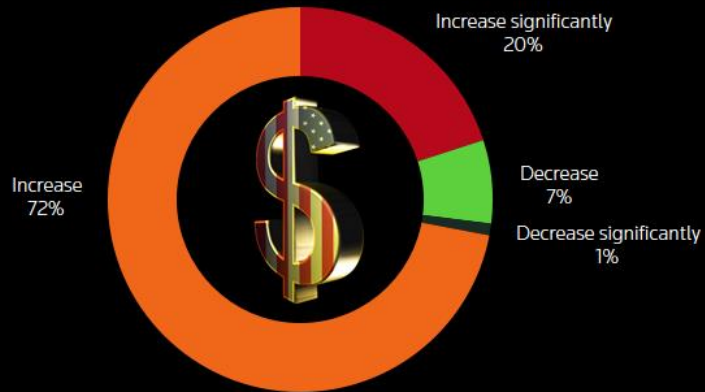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Reuters Poll: What will happen to volatility in FX markets in the next three months?



Poll conducted Feb. 28-March 3, 2022. 70 analysts responded to an additional question
 Source: Reuters Polls
 Milounee Purohit and Sujith Pai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기관명	설문참가자	예상환율 범위	
신한은행	김장욱 팀장	1190	1220
우리은행	이연종 과장	1170	1210
중국공상은행	유원준 팀장	1180	1240
DGB대구은행	이용주 차장	1175	1210
KDB산업은행	노기성 대리	1185	1215
NH농협은행	성혜미 과장	1180	1220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	1180	1210
현대차증권	오창섭 연구원	1190	1220
DB금융투자	문홍철 파트장	1185	1208
NH투자증권	권아민 연구원	1198	1210
평균		1183	1216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